

# 신안군, 국방대학교와 업무협약체결

### 안보교육-관광문화 분야 상호 참여와 지원 관련 국방대학교 국내 대표 관광지 탐방 프로그램 협조



신안군은 4일 국방대학교와 상호 교류 발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신안군수와 국방대학교 정해일 총장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방대학교의 안보교육과 신안군 관광문화 분야에 대한 상호 참여와 지원이다. 국방대학교는 본 협약에 앞서 지난달 30일

안보교육 입교생 중 외국군 장교 가족 20여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신안군 탐방을 실시하였다. 탐방에 참여한 외국군 가족은 신안군 분재공원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세계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퍼플섬을 방문하였고 매우 만족해하였다.

신안군은 정해일 국방대 총장이 개인적으로 자주 찾는 힐링지로 최근에도 휴식 차 몇 차례 다녀 갔다고 한다. 최근 세계적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는 신안군은 역점 사업인 1섬 1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 칼라마케팅을 적용하여 섬마다 다양한 특성과 색깔을 갖고 있다. 이번 주부터 수선화가 피기 시작하여 섬 전체가 노랗게 물든 지도 선도와 파도소리를 들으며 톨립을 감상할 수 있는 임자 대광해변이 대표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선도하고 있는 국방대학교의 신안군 탐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온라인 해피마미 출산준비교실 ‘성료’

무안군은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8회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해피마미 출산준비교실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태교,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영·유아 건강관리 등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군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사전 수강방법 안내, 수업 전 문자와 SNS로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프로그램 전 각 가정으로 배넛저고리 만들기 재료를 발송하고, 영양교육 전달 식재료를 가져가 집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큰 호평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임신부 이 모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된 교육이지만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돼 유익한 시간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안진화 건강증진과장은 “비대면 출산준비교실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임신부에게 예비 부모가 돼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광군청 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영광군은 군청 주차장에 민원인의 방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군청에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순환을 원활히 하여 민원인의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무인 주차관제시스템은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주차시간과 요금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요금 징수시스템이며,

결제는 신용·직불·체크카드, 삼성페이, 현금으로 가능하다.

올해 4월까지 설치하고 7월까지 문제점 보완 및 관리조례 제정 등 시범으로 운영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민원인이 조금이나마 불편함 없이 군청에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목포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 스카이원레저(주)·하나금융투자(주)·(주)한국토지신탁 등 공동 참여

목포시가 7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대영디엘엠 피에프비(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은 삼학부두 일원 총 20만㎡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카이원레저(주), 하나금융투자(주), (주)한국토지신탁 등이 공동 참여한다.

대영디엘엠 피에프비(주)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3,500여억원을 투입해 대형컨벤션(800명 이상 수용가능)과 총 900여실의 5성

급 호텔&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IHG그룹(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국내·국제 행사와 고급 숙박시설을 찾는 관광객 유치 가능해져 1500만 관광객도시 목포 도약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사업자는 육상부지의 50% 면적에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록 해상데크, 도로, 주차장, 워터프론트 등 공공시설을 조성 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게 된다. 기 조성된 삼학도 공원과 연계해 활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호텔그룹이 투자의향을 밝히는 등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남권 대표 숙박시설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영암군, 무화과 동해 예방용 부직포 관리 철저 당부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4월 이후부터 무화과 동해피해 예방을 위해 나무 위에 씌워둔 백색부직포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12월부터 3월까지 백색부직포를 무화과 나무 위에 완전히 덮어 무화과가 동해피해를 받지 않게 관리하였다면,

발아가 시작되는 4월 상순부터는 부직포 양끝 귀퉁이를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잎이

전개되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외기온도가 높아 부직포 내부온도가 30℃ 이상 올라갈 수 있어 측면을 군데군데 조금씩 걷어 바람이 잘 통하게 관리하여 고온장해를 예방해야 하고, 4월 말 부직포를 일찍 제거하면 순이 빨리 올라온 상태에서 늦서리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기상 상태를 살피며 부직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4월부터는 발아



상태, 내부온도, 늦서리 예보에 맞게 부직포를 관리해야 튼실한 무화과를 만들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부직포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 ‘찾아가는 자치학교’ 1회차 교육 ‘성료’

### 내달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

함평군은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주민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자치학교’ 1회차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주민자치와 공론장의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사단법인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김학성 소장이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김 소장은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의 과제와 해결방법을 찾는 공동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구에 불과했다면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에도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학교’는 내달 12일까지 매주 목요일(공휴일 제외) 진행된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